

연중 제 27 주일

제 1 독서: 창세 2, 18-24

제 2 독서: 히브 2, 9-11

복 음: 마르 10, 2-16

순정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르 10, 15).

강론

● 제24회 군인주일에 즈음하여 ●

군인들이 있는 곳에



오늘 10월 6일은 제24회 ‘군인주일’입니다.
‘군인주일’은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울러 군종신부들의 군 사목을 후원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군종교구는 작년에 보여주신 우리 교회 전체의 많은
기도와 도움에 큰 용기를 얻었으며 앞날에 대해 확실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군종신부들은 그동안
군종교구의 발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각 교구
장님과 모든 신부님, 수도자 그리고 교우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교회는 “너희는 가서 만민을 내 제자로 삼아라”(마태
28, 19)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명하면서 모든
제층과 공동체에 적절한 복음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의 순례자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함께 자리하듯이 인류와 하느님 백성의 일
원인 군인들이 있는 곳에도 역시 교회는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사목은 바로 군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요 형제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중
요한 선교의 장입니다.

군 사목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성숙의 길을 제
시하여 군인들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군인들이
한 인격체로서 그들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복돋아주는
교회의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들
신분과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군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교
회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군인들의 특별한 생활 조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고충과 영신적 문제들을
염려하여 신부들을 군에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군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군생활은 많은 젊은이들
에게 인생의 시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군종

신부들을 통하여 그들의 번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사목은 전국
각 교구들의 ‘공동사목’이며 초교구적인 활동입니다.
군종신부들이 각 교구에서 파견된다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각 교구들의 ‘공동
사목’인 군 사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의 상호 협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군
종교구 설정도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구의 연륜이 짧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저희 군종교구
입장에서는 사목의 상호 협력이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전체 지역 교회와 긴밀한 유대 그리고 후원이 계속 요
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후원에 있어서 일년에 한
번씩 군인주일에 실시하는 군 사목을 위한 헌금이 군종
교구의 일년 예산이 된다는 점은 이를 잘 나타냅니다.

군종교구는 우리 교회의 기도와 도움에 힘입어 국군
장병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1991년 10월 6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주교 정 명 조



여 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 상 갑(바오로)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자 전교의 달이다. 이에 전교의 달을 맞아 우리 교구의 교세 변동 추이 내지는 이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보다 효율적인 선교 대책을 세우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작년(1990년) 말 현재 우리 교구 신자 총수는 11만3천32명이다. 1980년 신자 총수가 6만5천1백34명이니, 지난 10년 동안 4만7천9백98명의 신자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3.5%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1만3천여 신자 가운데 8만6천여 신자만 수계생활을 하고 있어, 24%에 가까운 신자가 우리와는 멀리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4만1천7백여명의 외인 영세와 2만1천1백여명의 교우 자녀 영세로 6만2천8백78명의 영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세 증가는 4만7천9백여로, 실질적으로는 1만4천8백8십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교구으로의 전출이 타교구에서 전입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80년대에 들어서 교세는 해마다 적게는 3천8백여명에서 많게는 5천6백여명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다. 그리고 영세자도 해마다 적게는 4천8백여명에서 많게는 7천6백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세 증가와 비교해볼 때에는 영세자에 비해서 해마다 2천여명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영세자가 7천명이 넘었던 해는 우리 교구 설정 50주년이었던 1987년과 그 이듬해인 1988년이었다.

그러면 한국의 일반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가톨릭 신문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성인 입교 신자는 감소되고 냉담자는 증가하는 등 교회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숙의 결여가 교회의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단적으로 적고 있다(9월22일자 1면 머릿기사 본문). 성인 입교 신자의 감소와 냉담자의 증가,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교구는 ‘예비자 감소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교구 사제들의 의견을 모은데 이어서, ‘예비자 사목’을 위한 수도자 연수회를 가진 바 있다.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잠정적인 의견의 집약이 있었다. 그 가운데 사제들은 “예비 신자의 감소라는 시대의 징표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은 교회의 정화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예비자 지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간 막연하게 거론되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인 서울교구의 조사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교회의 정화’라고 지적한 의견이다. 그것은 곧 교회가 사회와 발을 맞추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둘째는 기술적인 것으로, 구태의연한 주입식 교리교육의 문제점이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비자를 위한 교리교재가 마땅하게 없다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비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실한 예비자 지도가 냉담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가버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양적인 교세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읍시다”라는 교구장의 연초 당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숲정이 산책



먼지만 나오는 호주머니

주님이 계시기에

레지오 반생의 노신사

김 후 만(비오)/덕진 성당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성모상과 촛불 두 자루, 그 앞에 초연히 앉아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노신사의 모습이 오히려 청초하다. 교회(古稀)를 바라보는 나이답지 않게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후만(비오·68세) 회장.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깍듯한 예의를 갖춘 그의 모습은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 그대로다. 김 회장이 레지오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55년 5월5일 전동 성당에 치명자의 모후라는 이름의 레지오 마리아가 처음 탄생한 지 1년 뒤였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모임을 여망하던 그는 우연히 레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때부터 기도의 정신과 성모님의 도구로서 서기, 단장 등을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풀며 받았고 그의 생은 희열에 넘쳤다. 1970년을 전후해서 현 레지아 승격 전인 꼬미씨움의 단장을 맡고 있을 때 레지오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성심학교 교정에서 갖았었는데 당시 2,500여 레지오 단원은 물론 전교구 신자들의 운집으로 교통이 통제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전주교구 레지오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으니 가히 성모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었으랴! 레지오 활동과 함께 전동 사목

회장, 서학동 사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열심했던 그의 생활은 바로 성모님의 도구, 그것이였다.

5대째 신앙을 이어온 태중교우인 그에게 신앙적 회의감에 젖었던 시절, 일제 치하에서 중학교를 다녀야 했던 그에게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압박감, 신앙적 의무감 등, 신앙은 한낱 허영과 사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형님인 김후성(프란치스코) 신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신앙적 도움으로 여린 그의 신앙도 서서히 굳어져 갔다.

40대 후반 한때, 모든 공직을 떠난 적도 있었다. 잠시 쉬고 싶은 욕심이이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만히 버려두질 않으셨다. 성당 내 대소사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게 하셨다.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온 70평생. 후회도 여망도 모두 마치고 달려온 길에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를 신앙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레지오 반생에 아직도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신앙의 원숙함이 돋보임은 그만이 간직한 갈고 닦인 성모님 도구의 광채가 아닐까?

신자들의 소리

상처난 묵주알을 굴리며

고 흥 석(요한)/레지아 부단장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며 전교의 달이다. 로사리오를 바치며 거룩하게 지내는 달로, 이는 교황 레오 13세가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고 성모 호칭 기도예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의 모후’라는 호칭을 추가하여 로사리오에 의한 신심을 장려한 데서 비롯한다. 주회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전교를 주요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 10월이야말로 단원들의 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동안에 수없는 유혹과 분심이 묵주알을 쪼개고 쪼먹어 하나도 성한 데 없는 묵주 꾸리미를 바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50개의 장미꽃으로 다발을 만들어 성모님께 바친다면 아마 성모님은 별레 먹고 명들고 찢어진 꽃다발을 받으시고 얼마나 어이없어 할 것인가. 나날이 그런 시들어진 꽃다발만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어찌 끔찍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로 채찍질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서도, 매순간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더구나 일상의

계에서 벗어나 맑고 고요한 시간에 우리 마음속의 성모님을 바라보면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눈망울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만다. 부끄럽다.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가 두려울 정도다. 10월이야말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바친 로사리오 기도를 되새겨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각오로 싱싱한 장미 꽃다발을 성모님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성서대로 생각하고, 성서대로 말하고, 성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이 땅에서 한반도의 시대적 징표인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다. 내 자신의 인간적 나약함과 안일함에 젖고자 하는 술한 유혹으로부터 극복의 체찍질 당하여 시퍼렇게 멍든 장미 꽃다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는 진실이 돌아나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시편 85,10-11)는 희망찬 그날이 올 때까지 상처난 묵주알을 굴린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①



기쁜 소식을

“반가와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동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어”(이사 52, 7).

선교란 하느님 말씀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써 나와 함께 사는 이들, 고통중에 있는 이들, 가난한 이들... 온 세상으로 향한 사랑의 손짓이요 구원의 깃발이다. 이렇듯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의무기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 중에는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땅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가 있다.

우리 교구 소속 해외 선교사들이 멀리 남미 페루에 파견되어 첫발을 디딘지도 어언 오년여의 세월이 흘러갔다. 흐르는 세월만큼 그곳 선교 공동체 내에서도 경험은 축적되고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교구에서 파견된 사제들이 두 분의 성체회 수녀들과 함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페루 아마조나스주의 차차뿐야스 교구 소속 본당인 ‘뽀마코차’라고 하는 곳이다. 남위 6도, 페루 북동부 안데스 산맥의 한 줄기에 자리한 곳이어서 위도상으로는 열대지방에 속한 곳이지만 해발 이천미터 이상으로 고산기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계절의 구별이 없고 연중 늦가을 날씨가 계속되며 다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다.

연중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우기 때에는 매일 퍼붓는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길은 온통 진흙벌로 바뀌고 깊게 패어나가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한번은 수녀들과 함께 차로 공소 방문을 하러 가는 중에 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차가 빠졌으니 지나가는 차도 없고, 물이 차 속에까지 들어차고 게다가 진흙탕물이 엔진을 뒤덮어 차마저 고장이 났으니 우리는 추위에 떨며 새우잠을 청하는 것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소를 끌고 차를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큰 트럭을 만나 쇠파슬로 건인해서 가까스로 끌어냈지만 차는 엇가락처럼 갈갈이 찢겨나가고 엔진에 진흙이 들어가 차가 수리 불능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렇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말 혹은 간간이 지나가는 트럭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두 위험한건 마찬가지여서 맨발로 걷는게 제격이다.

그곳 본당에는 십여개의 공소가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고 저희가 주일미사를 돕고 연중 한 번씩 공소 방문을 해주고 있는 흠비자라고 하는 곳엔 공소가 약 15개 정도 된다. 공소는 본당에 비해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순박한 편이어서 피곤한 선교사들에게 달걀 하나라도 기꺼이 손에 안겨주려 하고, 자기들이 덮을 이불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놓곤 한다. 일부 공소는 해발 삼천미터 이상 되는 곳도 있어서 밤엔 초겨울처럼 춥다. 구름이 마을 아래에 깔리고 밤새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떠는 말들은 곳곳에서 풀을 찾아 헤맨다.

이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지진 발생 중심지가 이곳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안팎에 있어 피해가 보통이 아니다. 곳곳에 벽이 허물어진 빈 집들, 대성전처럼 흩벽돌로 크게 지은 공소 건물들이 지진 때문에 허물어져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 (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토건설국 앞
☎ 855-1323, 855-1324

샤넬안경원

이순구 (도미니코)
정병채 (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공인중개사 송영은 (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우리정돈

모범업소 (조리사의 집)
박성환 (조기리아)
김성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전하는 사람들

이곳엔 미혼모들이 참 많다. 이곳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은 남편과 헤어져 홀로 땅을 파일구며 남자들에게도 벅찬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 문제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일인지 정작 당사자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

그밖에 테러단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행위로써 최근 그들의 폭력을 비난하는 사제 3명이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상황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90%가 가톨릭 신자로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모 신심이나 성인들에 대한 공경심도 대단하다. 그리고 마을에 큰 축제가 있을 때면 행사에 앞서 미사를 드린다.

아직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는 있지만 자원이 풍부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도 깨끗하게 치뤄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난문제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원시적인 생활은 별 문제가 안된다. 마을엔 씨족

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고,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무공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사제성소도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 본당 신학생도 소신학생까지 합치면 4명으로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가 되어주고 있다.

다만 이곳 사람들 마음이 굳어가는 땅 처럼 신앙의 싱싱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깝다.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데 있어서 언어 습득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으니 이것 또한 우리 선교사들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지난번엔 우리 주교님께서 방문하셔서 힘을 북돋아주시고 사제관, 성당 건축 비용을 지원해주셔서 여간 고맙지 않다. 앞으로 수녀들이 운영하게 될 식당 건립이 완공되면 불우한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다. 선교란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이웃 형제들의 마음에 심고 가꾸는 일을 위한 성령의 협력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선교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요 기쁜 소명이라 할진대 결코 자량이 될 수 없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일을 주님의 은총과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루 하루 해나갈 뿐이다.

페루 교포사무
서 정 현 신부

요십이 (948) 김병오



서신동 성당 바자회

일시 : 91년 10월 17~21일까지
장소 : 윤정이 성당
내용 : 생필품, 농수산물, 음식, 차, 세라믹요와 자기
※ 것길류 도·소매합니다.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디도)

“ 선교란
그분의 말씀을
이웃 형제들의 마음에
심고 가꾸는 일을 위한
성령의 협력자 ”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 (요 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연

☎ 84-729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주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에 감미로운 소리를
독일형 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젠, 관 · 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풍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뿌리를 찾아서

대야 성당

- 넓은 들에 싹튼 신앙의 터전 -

대야 성당이 위치한 옥구군 지역에는 일찌기 복음이 전래되어 1885년 성산면 산곡리 공소의 설립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공소가 생겼다. 그러나 대야 본당의 모체는 1948년에 설립된 대야면 신당 공소였다. 이 공소는 당시 군산(현 둔율동) 본당의 주임 박성운 신부와 공소 교우들의 노력으로 1951년 8월 22일 축성식을 하였다. 신자들은 주일이면 공소예절, 판공성사 등 신앙생활에 충실하였고 400여명에 이르는 신자도 확보되어 드디어 1956년 4월 20일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본당 공동체는 성당과 부속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교구 보조 등을 받아 현재의 성당 대지를 매입하여 그해 11월 유치원과 사제관을 지었다. 성당은 공소시절의 강당을 사용했으나 너무 낡았기에 유치원과 사제관을 수리하여 성당으로 이용하였다.

본당의 사목과 선교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유치원과 사제관, 공동 공소와 임피 공소 등을 지었고 청년회, 부인회, 성가대, 본당 운영위원회 등 단체를 조직하여 사도직 활동을 부추겼고,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을 중시하여 1958년 성모 유치원도 개원하였다. 레지오 마리아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에 활력을 촉진시켰고 성당 이전, 본당 단독 꾸리아를 발족시켰다. 한편 청소년의 종교교육과 신자 재교육을 위해 신앙 강좌를 자주 개최하였고, 방학에는 신학생들로 하여금 각 공소와 본당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성시간, 성체조배 등으로 성체신심을 함양시키고 구역 모임, 구역 미사로 구역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등 피나는 노력으로 본당 발전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한때는 사제 없이 본당을 꾸려

나가야 했던 시련의 시기도 있었지만 사도회장과 신자들이 단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었다.

이렇게 희비쌍곡선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해온 본당 공동체는 오늘날도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매일매일 충실한 빛을 발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씨를 뿌리시오

씨를 뿌리시오! 씨를 뿌리시오!

씨 뿌리는 일이

지루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수 때 기쁨이 옵니다.

선과 평화를 전파하는 걸음은

행복합니다.

교회인 어머니의 마음을 소유하며

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신비로운 침묵 속에 온 세계로 향한

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교회의 길을 들여보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느님의 사신들은 행복합니다.

가정마다 사랑의 기쁜 소식과

주님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배달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고통과 기도와 활동을 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길을 걷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오 미 용 실

신부화장 전문, 특수 헤어스타일

정통고데 · 컷트, 피부미용관리

완산구 중노송동 478-32

오 정 희(데레사)

☎ 88-1603

사 원 모 집

당사는 (주)백양개발회사로
서 사원을 모집합니다.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원비

상여금400%, 6개월이상100%

(주)인하재단 3공장

T. 212-3855, 야간86-4494

채영화 · 박영숙(마리아)

개원 베드로의원

외과 · 내과 · 소아과 · 비뇨기과

원장 전문의 정 욱(베드로)

유은주(프란치스카)

진주시 효자동1가 280

(한미주유소←중간→놀부보쌈)

☎ 224-8777

세 계 놀 이 방

24시간 탁아제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일,1주일,1달,1시간~24시간

원장 이 미 숙(데레사)

☎ 223-5044

* 한글, 산수 무료 수강

교구소식

❖ 축! 건진

- 때: 10월12일(토) 오후3시
- 곳: 둔율동 성당

❖ 축! 건진

- 때: 10월13일 오전10시30분
- 곳: 나운동 성당

❖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 때: 10월13일 오후1시
- 곳: 해성학교 윤호관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10월13일 오전9시30분
- 곳: 가톨릭센터 집결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10월7일(월) 오전10시30분
- 곳: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사랑의 다리 회원과 사회복
지활동을 후원코자 하는 분

❖ 91년도 M. E. 정기 총회

- 때: 10월13일 오후2시
- 곳: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성마리아 묵상세미나와 성시간

- 때: 10월10일 오전10시~
11일 오후 5시
- 곳: 서신동 성당
- 회비: 5,000원
- 문의: 74-9260

❖ 맹인들을 위한 모임 안내

- 때: 매월 둘째주일 오후2시
- 곳: 교구청 별관 1층 강당

❖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바자회

- 때: 10월 11일~13일
- 곳: 중앙성당

❖ 주소 변경

- 정태현 신부: Callistus Jung
Episcopal Divinity School
99 Brattle Str.
Cambridge Mass.
02138 U. S. A.
Tel. 617-354-8865

• 이성우 신부:

MATTIA LEE(SONG UH)
Pontificio Istituto di Musica
Sacra Via di Torre Rossa, 21
I-00165 ROMA, ITALIA

• 김선태 신부: Johannes Kim

Foyer St-Justin 3,
Rte du Jura
1700 Fribourg SUISSE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10월13일 오후1시
- 곳: 본원 (0652)84-3231

❖ 경로수녀회(피정)

- 때: 10월19일 오후 5시~
20일 오후 5시
- 곳: 청주 본원(성심양로원)
- 문의: (0431)56-6697
(0331)41-146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수입 농산물-먹어야 하는가?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우리는 자
몽, 옥수수 등 각종의 수입 농산물이 맹
독성 농약에 오염되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화학농법(맹독성 농약 사용)으
로 기업화된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
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는 자
국민이 소비하는 것과 수출용으로 구분

되는데 자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은 맹
독성 농약의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나
수출용의 경우는 규제 기준이 허술하거나
아예 규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반되는 중에도 계속 농약과 방
부제를 뿌리기에 결코 신선할 수 없는
수입 농산물, 오직 팔기 위해 겉만 번지
르르하게 가꾼 농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그들도 안 먹는 것을...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 9월 3회, 10월 3회
* 장소: 제주시*형제의 집 피
정센터(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충부 (0431) 52-8559

주부사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88-8027 야간71-5827

순 꼬리로만 고풍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셉)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72-5801

개업 선물, 행사용품, 광고성남 위생 젓가락, 상패, 트로피 노령기획

(비사표 광고 전주대리점)
김 배 근(스테파노)
김 현 필(베드로)
☎82-6224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 봉 석(루가)
김 인 숙(데레사)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10월 전교의달을 맞이하여 예비자 인도를 정성을 다합니다. 3. 평일미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 미사시간 - 월요일 : 새벽 5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전 10시 30분, 후 7시 30분 목요일 - 토요일 : 전 5시 30분, 후 7시 30분
4. 10월 로사리오 성월동안 평일미사 30분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5. 올드레아 : 오늘 후 8시. 6. 부녀회 상임위원회 : 9일 어머니미사 후. 7. "축" 혼인 13일 후 1시 신랑-정병두, 신부-오계선(안네스) 8. 어린이 성가연습 간식비 협조 : 남도 1반 이영철(야고비)씨 감사합니다. 9. 미사작 10분전에 오셔서 성가연습을 합시다.

10. 금주청소 : 남도 5, 6반 차주청소 : 중도 1가 1, 2반

□ 지난주 봉헌금 : 1,014,540원 □ 교무금 : 1,36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분과 : 8일 오전 10시 4. 여성분과 : 12일 오전 10시. 5. 안나회 성지순례 : 10일 오전 10시. 천호성지. 예산성지. 6. 꾸리아 : 13일 오후 2시 7. 요셉회 : 13일 공식미사 후 8. 청년회 : 13일 저녁미사 후 9. 성우회 : 13일 공식미사 후 10. 여성단체 성지순례 : 21일 오전 8시 출발 장소-출퇴, 회비-10,000원 11. 나바위 성당 피정의 집 2차헌금 12. 가정방문 : 8일 오전 9시 태평 1반. 10일 - 오전 9시 태평 2, 3반 성당청소(12일) : 구세주의 모친 Pr. 일지의 모후 Pr.
금주전례 : 해설-정현자 독서-채용석씨 부부 봉헌-김영수씨 가족
차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정승관씨 부부 봉헌-유덕영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55,740원 □ 교무금 : 1,117,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 미사중 2차 헌금
2. 교무금 납부의날 : 매월 첫주(오늘)
3. 꾸리아 : 공식미사 후
4. 성서읽기 : 필독서 전체
5. 봉헌제 : 8일(화)
6. 청소년 : 천사들의 모후 Pr
7. 성체강복 : 10일(목) 미사 후
8.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 최원규 ② 오귀남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 유순천 ② 김연순 봉헌-이옥동, 양대환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56,200원 □ 교무금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오늘은 군인주일 ! (2차헌금있음) 10월은 로사리오성월 ! (전교의달)
1. 회의 : ① 반장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다음주 일 후 2시 ③ 성심회 - 10월 13일(일) 오후 2시.
2. 모임 : ① 올드레아 - 10월 16일(수) 저녁미사 후
3. 일일 : ① 교리교사가 부족하여 초·중·고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뜻있는 분은 좀 수고해 주십시오.
② 분실물을 찾아가세요(묵주, 기도서등) 사무실에 있습니다. ③ 영세하신분들은 사진찾아가세요. 사무실에 있음.
④ 전교의달을 맞이하여 예비자를 인도합니다(성인반과 학생반)
⑤ 청년성가대원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 많은 참여바람.
□ 지난주 봉헌금 : 630,150원 □ 교무금 : 748,5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호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조지환

1.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2. 혼인성사 : 10월 15일 오후 7시(혼인면담, 6일 오후 8시, 도장지참)
3. 견진교리 : 12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4. 남성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 : 9일(수) 오후 7시 30분
5. 청소년 구역 : 3단지 아파트 동원
□ 지난주 봉헌금 : 684,420원 □ 교무금 : 1,16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오늘은 군인주일 : 2차헌금있음(군인사목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1. 올드레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재속글라리아례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3.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성심여고 강당
4. 구역봉사자모임 : 오늘 저녁 7시 30분
5. 반기도회 : 8일 ~ 11일 반미사 : 8일 - 전동 7반. 9일 - 풍남 1반 10일 - 풍남 5반 11일 - 서완산 1반
6. 돈보스코회 : 9일(수) 저녁 7시 30분
7. 다음주회합 : 자모회 - 오전 10시 사목회 - 공식미사 후.
* 금주보수비헌금액 : 1,165,000원 * 현재모금액 : 249,607,801원 □ 지난주 봉헌금 : 1,471,0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일상장병을 위해 2차헌금 있음.
1. 구역 반미사 일정 : 해당되는 반신자는 꼭 참석을 바랍니다.
1구역 1반 - 8일 전 10시 30분, 1구역 2반 - 10일 전 10시 30분.
1구역 3반 - 10일 후 8시, 1구역 4반 - 11일 전 10시 30분.
2. 여성 제36차 꾸르실로 강습회 : 10일 ~ 13일, 서기만, 광명실.
3.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 13일 후 1시, 혜성학교 윤호관
4. 가정미사 : 8일 후 8시, 한혜영(해레나) 극동 A.P.T 나동 903호
5. 성소 후원회 월례미사 : 8일 후 2시(궁전 A.P.T)
6. 회의 : 자모회 - 9일 어머니미사 후, 이사온 신자 가입 환영.
7. 직장 여성 L.M단원 모집 : 9일(수) 후 8시 제1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 731,430원 □ 교무금 : 1,10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오늘미사 후
2. 사목회 : 구역반장 월례회 - 8일(화) 저녁미사 후
3. 성모회 : 청년회 : 다음 주일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저녁미사 오후 7시 30분.
5. 전례자 교육 : 24일(목) 오후 7시 -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도록 쉬는 교우들을 인도합니다.
7. 청소년 : 자비의 모후 Pr
8. 금주전례 : 최정순 독서·봉헌 : 노옥임, 강경식
차주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 : 김강, 정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10월은 매괴 성월입니다.
※ 축! 꾸르실로 여성 36자 10월 10일 - 13일 김충숙(엘리사벳) 이해영(아네스)
1. 해미 성지순례 : 11월 10일(일) 참가비 10,000원(사무실에 접수바람) 2. 모임안내 : ① 꼬미씨출석속 뽀리시디움 단장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② 올드레아 - 다음주(13일) 저녁미사 후(환영회 결합) ③ 글라리아 - 다음주(수) 10 : 00 3. 부활한 예비자 교리안내 : 11월(09 : 30) ④ 목(후 7 : 30) 금(10 : 40) 모든 신자들이 예비자 안내에 힘쓰십시오. 4. 여성봉사자 피정(구역봉사자여성단체) : 16일 9시 30분 - 후 5시 5. 견진교리 : 매주(금) - 후 7시 30분 6. 학생견진교리 : 토요일 오후 5시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120,140원 □ 교무금 : 3,477,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 10월은 로사리오성월입니다. 미사 30분전에 묵주기도 있습니다.
1. 군인주일 2차헌금 2. 사목회 :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 공식미사 후 4. 본당의날(10·13)행사에 협조할 은인을 구합니다. 5. 성모, 자모회 : 11(금) 10시미사 후 6. 독배금소미사 : 11(금) 오후 2시 이서공소 : 11(금) 저녁 7. 성전신축을 위한 정갈관매합니다. 8. 빈첸시오회 : 14(월) 9시미사 후 회장 : 윤정숙(보나) 부회장 : 심숙자(엘리사벳) 서기 : 최윤희(렘마) 회계 : 이준순(안나) 9. 제대회 : 7(월) 9시미사 후 10. 레지오단원교육 : 7(월) 저녁 7 : 40 11. 경품기증 : 익명 5만원, 익명 3만원. 차주모임 : 올드레아 신축헌금봉헌금 : 540,000원 차주전례해설 : 강진상 독서① 김용대 ② 최정남 기도① 김완주 ② 조영애 □ 2차헌금 : 567,740원 □ 지난주 봉헌금 : 952,520원 □ 교무금 : 2,066,000원